



8일(한국시간)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더반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의 월드컵 준결승에서 스페인의 카를레스 푸욜이 후반 28분 사비의 코너킥으로 올라온 공을 헤딩 슈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동성 VS 패스웍... 최후 승자는

### 네덜란드 32년·스페인 80년만에 결승진출

#### "효율축구 지존 가리자" 12일 마지막 승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컵의 주인은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와 '무적함대' 스페인의 한 판 대결로 가려지게 됐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12일 오전 3시30분(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사커 시티 스타디움에서 대회 결승전을 치른다. 4강에서 네덜란드는 우루과이를 3-2로 꺾었고, 스페인은 우승 후보 독일을 1-0으로 눌렀다.

2006년 독일 대회까지 총 18차례 열린 월드컵에서는 브라질(5회), 이탈리아(4회), 독일(3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이상 2회), 잉글랜드, 프랑스(이상 1회) 등 일곱 나라만이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이제 월드컵 역사상 여덟 번째 챔피언 탄생을 눈앞에 뒀다.

네덜란드는 1974년 서독 대회와 1978년 아르헨티나 대회에서 2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결승 진출도 아르헨티나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스페인은 1950년 브라질 대회 때 4위가 역대 최고 성적일 정도로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결승 진출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무려 80년 만에 처음이다. <효율 축구> 지존 가리자= 이번 대회는 화려함보다는 조직력을 앞세워 기복 없는 플레이로 필요한 승점을 챙기는 '실리축구' 쪽으로 세계축구가 흘러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원샷원킬'로 상대의 승리를 끊는 경기 운영 방식이 대세였다. 결승에 오른 네덜란드와 스페인 역시 철저하게 실리를 챙겼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로 정의되는 '토탈 사커'의 원조 네덜란드는 베르트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취임한 이후 실리축구를 선택했다. 끈끈한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유기적인 플레이로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했다. 네덜란드의 '실리 축구'는 지역예선을 포함한 14경기 연속으로 나타나 '전승 우승'에 대한 기대까지 부풀리고 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4강까지 6경기 동안 고작 7골을 터뜨리는데 그쳤다.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 우승 때



결승까지 6경기를 치러 12골(3실점)을 넣었던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단 2실점만 하는 '짠물 수비'로 결승까지 올랐다. <네덜란드 '기동성' vs 스페인 '패스게임'> =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같지만, 상대를 요리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공수 전환을 무기로 내세운다.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 공격수들의 협력 수비가 적극적이다. 4-2-3-1 포메이션의 측면 날개로 나서는 디르크 카유티(리버풀)와 아르연 로빈(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해 최전방 원톱 로빈 판

페르시(아스널)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베슬러이 스테이너르(인터 밀란) 등 4명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면서 경기를 풀어가 수비수들이 막기가 어렵다. 스페인은 중원에서 아가자기한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품이다.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스페인은 중앙의 사비(바르셀로나), 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 세르히오 부스케츠(바르셀로나)와 좌·우 날개 페드로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이상 바르셀로나) 등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 미드필더에 포진한다. /연합뉴스

## '점쟁이 문어' 파울 또 맞히고 '축구황제' 펠레는 또 틀렸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기간 최고 스타 중 하나로 떠오른 독일 '점쟁이 문어'의 예언이 또 한 번 적중했다.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생물박물관 수족관에 있는 '점쟁이 문어' 파울은 8일(한국시간) 열린 스페인과 4강전까지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독일이 치른 경기의 승패를 정확히 맞췄다. 조별 리그에서 독일이 호주와 가나에 승리하고, 세르비아에 패할 것임을 짐작해처럼 맞추고 잉글랜드와 16강, 아르헨티나와의 8강 승리도 예측하면서 유명세를 탄 파울은 독일-스페인의 준결승을 앞두고 스페인이 승리할 것으로 예언해 독일 축구팬들을 실망시켰다. 경기를 하게 될 두 나라 국기가 그려진 유리상자에 홍합을 넣고 과연 파울이 어느 쪽 홍합을 먹느냐에 따라 예언의 내용이 정해지는 방식인데, 파울은 스페인 상자로 가 푸경을 열고서 홍합을 삼켰다. 그러나 박물관 관계자들은 "파울이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도 한 경기만 빼고 독일의 승패를 모두 맞췄다. 그 한 경기만 빼고 스페인과 결승(스페인



1-0 승)이었다"며 독일에도 희망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울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펠레는 이번 대회 개막을 앞두고 브라질과 스페인을 우승 후보로 꼽았다가 16강전을 앞두고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독일 가운데 한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독일은 4강에서 패해 우승 꿈을 접었다. 문어만도 못한 펠레가 됐다. /연합뉴스



## 투혼의 푸욜 스페인축구사 새로 쓰다

### 80년만에 결승 진출 선물한 '수비 조율사'

#### 전차군단 스톱시킴 한방은 월드컵 데뷔골

통산 3회 월드컵에 출전한 베테랑 수비수 카를레스 푸욜(32·바르셀로나·사진)이 조국 스페인에 80년 만의 월드컵 결승 진출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줬다. 푸욜은 8일(한국시간)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더반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전차군단' 독일과 2010 남아공 월드컵 준결승에서 후반 28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뜨려 스페인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사자의 갈기를 연상시키는 긴 고수머리가 인상적인 푸욜은 스페인이 자랑하는 중앙 수비수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3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은 베테랑이다.

푸욜은 이번 대회에서 같은 소속팀의 헤라르드 피케(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중앙 수비를 도맡아 조별리그 3경기와 녹아웃 스테이지(16강-8강-4강) 등 6경기를 치르면서 단 2실점만 내주는 철벽 방어를 자랑했다. 수비수로는 그리 크지 않은 1m78cm의 신장이지만 정확한 위치 선정과 과감한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수들의 돌파를 막아내면서 스페인의 '실리축구'를 이끌어왔다. 푸욜은 이날 전반 13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의 코너킥을 공격에 가담해 헤딩슛을 시

## 파라과이 '휴대폰걸' 리켈메 누드 약속 지켰네

파라과이의 '휴대폰 응원녀'로 유명세를 얻은 라리사 리켈메(Larissa Riquelme·사진)가 7일(현지시간) 파라과이 현지 언론 디아리오 포퓰라르(Diario Popular)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전신 누드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서 리켈메는 파라과이 국기를 배경으로 자신의 누드를 선보였다. 파라과이 축구 대표팀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리켈메는 당초 "파라과이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누드로 거리를 뛰어다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파라과이가 8강에서 스페인에 패하면서 이 약속은 무산되는 듯 했다. 이후 리켈메는 파라과이를 꺾은 스페인이 우승하면 누드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다시 선언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일정	
	스페인 vs 네덜란드 결승전 (12일 03:30)
	독일 vs 우루과이 3·4위전 (11일 03:30)